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9호 [주체 제25698호] 주체 106(2017)년 7월 8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당과 무력기관의 일꾼들, 대륙간관도르케트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집대성되어있는 혁명의 대정당, 주체의 최고성지는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 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향열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땀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띄여져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결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

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결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진계 참가자들은 자주와 선군의 기치높이 백전백승하는 필승불패의 백두산대국을 최대의 애국유산으로 물려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본사정치정보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나이제리아런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만수대연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런방공화국 대통령인 무함마두 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영원한 수령 국제사회계의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

주체의 광휘로운 빛으로 사회주의 위업, 인류사주의 위업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한평생을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인다스트리》는 다음과 같이 진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하시고 세계사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탁월한 정치가이시다.

많은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그에게 끝없이 애복의

을 펼치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건설하시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명도림에 조선에서는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되고 세균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었으며 이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발전되였다.

주석의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덕망은 새인을 감동시켰으며 누구나 그를 열렬히 존경하고있다.

김일성주석 서거 23돐 스위스 회고위원회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하늘이 낸 위인이신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이 만만년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민족적영웅이시며 조선해방의 운인이다.

그는 한세대에 미립 두 계급주의의를 파멸시킨 강철의 명장,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자애로운 어머니이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그이께서는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회고 국제위원회 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회고 국제위원회가 6월 25일에 결성되였다.

최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회의 국제연합 총서기 미하일 반셀코가 선출되였다.

최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그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본도 물론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며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힘있게 과시한 영용한 국방과학전사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평양 도착, 수십만 수도시민들 뜨겁게 맞이

2 면 에서 계속

대성구역안의 녀병원들이 펼친 붉은기초와 《나가지 조선이 병진앞으로》 등의 노래 선물이 위훈자들에게 가슴을 더더욱 후련하게 하여주었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생산에서 편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326전선공장의 로동계급이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내었다.

선군의 보검으로 전쟁의 불꽃을 밀어낸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꽃피워가고있는 소년단원들도 위훈의 창조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었다.

환영의 꽃물결을 헤기르며 폐사행렬은 육류교를 지나 대학거리를 향해 달렸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피로 및 내이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

는 중구역, 락방구역, 선교구역, 대동강구역안의 각계층 근로자들도 열정적으로 꽃다발을 흔들었다.

당의 과학기술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첨단과학기술의 명마루를 향해 힘있게 전진하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현대수평양정공업종합대학 등의 학생들이 국방과학전사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걸사대 앞으로!》의 구호를 들고 견인불발의 투쟁으로 민족사적인 특대사변을 안아온 국방과학전사들처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진총동력전을 파강히 벌려 이 땅위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만드실 일로써 우리 애국애민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이 《사회주의의 오직 한길로》, 《승리는 대를 이어》 등의 노래선물에

실려 수도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 갔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을 축하하여 수도의 거리들에 펼쳐진 감동적인 화북은 미제와 봉쇄의 거대한 도끼와 검봉을 높이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우리 당의 병진노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들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원만국민의 역적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일대 표시이다.

주어 어떤 강도도 감히 넘볼수 없는 위대한 조국,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우리 사회주의조선은 만고불변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어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누리어 빛을 뿌릴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유엔인구기금대표부 성원들과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꽃바구니 진정, 스위스조선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지 23쪽에 즈음하여 주조 유엔인구기금대표부 성원들과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성동포가 7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선혁명과 세계사주 화위일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였으며 완성이 숭고한 희망으로 혁명적도덕의 빛나는 장을 이루세게오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짐있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지 23쪽에 즈음하여 유엔인구기금대표부 성원들과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성동포가 7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라는 글씨가 적혀져있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지 23쪽에 즈음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에서 꽃바구니

문평제련소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문평제련소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7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박정남 강원도당 위원회 위원장, 제련소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문평제련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주체36(1947)년 7월 8일 문소 문평제련소를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련소를 큰 규모의 유익금속생산기지로 발전시키는데 대한 위대한 정열을 밝혀주시고 여러차례나 지독한 영도의 자욱을 세기시어 로동계급을 생산적양양과 위훈장조로 이끌어주시었다고 지적하였다.

주체54(1965)년 5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제련소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평제련소는 우리 나라의 보배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로동자들을 힘있는 로동에서 해방하는데 대한 광명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생산활동화와 현대화에서 큰 결실을 내리시도록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시는데 대하여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문평제련소가 창립후 지난 70년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와 혁신으로 빛나는 자랑스러운 연혁을 새겨왔다고 지적하였다.

제련소의 로동계급이 백두의 굴함없는 공적정신과 전진불발의 의지로 파강한 생산동력전을 벌려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 유익금속을 보내주었으며 수백건의 발명 및 기술혁신인들을

받아들이 제련실수율을 더욱 높이고 연료의 국산화를 실현해나감에 있어 높이 평가하였다.

축하문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진총동력전의 불길속에서 제련소의 로동계급이 중앙우령, 창조우령, 돌격우령을 줄기차게 전개하여 뜻깊은 6월 19일을 계기로 삼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기업소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일관단심 당과 수령에 대한 백두같은 충정과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대중적영웅주의와 지역경쟁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경제

회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문평강국건설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기와 문화후생시 실들을 더 잘 꾸리며 수확화, 원림화, 파수원화를 다그쳐 제련소지사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고지를 집행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 총동력함으로써 지방관료적성분들을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땀땀이 들어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지난 4일 우리 국가해무력형성을 위한 최후판본인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은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치열한 반제국미대결전투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마련한 일대 정거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세계적인 위협》으로 불이붙이면서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인 제재압박도수를 최대로 높여보려 하고있다.

맹렬히 하던데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개발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미국의 대조선전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자위적인 선택이다.

이 세상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여러개 있지만 우리에게 항시적인 핵위협과 공갈을 일삼는 나라는 오직 미국밖에 없다.

우리의 핵무기, 탄도로켓들은 제는 철두철미 조미사이의 문제이며 어떤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는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닌 바로 미국에 보내는 《선물 보따리》이다.

백두대륙간탄도로켓보유국들 가운데 우리만큼 그 개발과 시험발사를 투명성있게 한 나라는 없다.

우리는 가중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항해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대륙간탄도로켓을 개발한다는것을 공식 선포하고 발동기연소시험으로부터 지상분출시험, 시험발사에 이르는 모든 공정들과 전술기술적제련, 기술특수성과 같은 예민한 문제들까지 다 공개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이 다른 나라들을 불에 태워놓는다는 반말로 공격하여 세계제국을 실현하려는 야망밑에 쿠미리에서 개발하고있는 미국의 침략전쟁장비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철저한 핵전쟁억제력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선택을 《세계적인 위협》으로 집고돌면서 그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행동》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남을 희생시켜 제 이익을 차지려는 트럼프식 《미국제일주의》의 적과라한 표현이다.

자기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한 주권국가를 반대하는데 온 세상을 동원시키겠다는 강도적 심보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 자주적인 나라들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으로 우리 국가해무력의 전쟁억제효과는 비할바없이 커졌으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은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될수 있게 되었다.

천내리세멘트공장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천내리세멘트공장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7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박정남 강원도당 위원회 위원장, 판계부, 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천내리세멘트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해방후 새 조국건설에서 세멘트공업발전이 가지는 의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집중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사회주의대건설 투쟁을 높여 보내는 자랑찬 위훈이 새겨져있다고 지적하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지역자강의 혁명정신으로 지역경쟁기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나라의 손꼽히는 세멘트생산기지인 천내리세멘트공장이 언제나 깊은 판심을 뚫어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현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2월 17일과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파견해주시고 건설공업발전에서 앞장서나간 로동계급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천내리세멘트공장의 70년연혁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증산의 믿음, 창조와 열정을 높이 품으며 집중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사회주의대건설 투쟁을 높여 보내는 자랑찬 위훈이 새겨져있다고 지적하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지역자강의 혁명정신으로 지역경쟁기

들과 공무동력 및 수리기지들을 본론의 우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새조기추진과 선진기술을 원산국민발전소, 원산유아원, 애육원 등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건설장들에 세멘트를 원만히 보내는데 대하여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일관단심 당과 수령의 병도볼 총적하게 받들고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믿어줄만한 당의 경제공업정책관철에서 혁명적 위훈을 세운 천내리세멘트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천내리세멘트 공장 지대인 열명하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류승철, 조광철년 돌맹이서 황철환, 직장장 김은산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끈연높은 핵강국, 로켓강국의 공민원 궁지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진총동력전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자랑한 로적정성으로 빛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다음주에 진승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된다.

9일(일요일) 오후 대동강의

미림강운동장에서는 목혜은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오프선인경기기가 벌어지게 된다.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에서 12일까지 펼쳐어울기 1급 남, 녀경기, 13일부터 16일까지 수중레저무용 1급경기가 진행된다.

봉스기 성인급 남, 녀경기가 10일부터 13일까지 대동강에서 있게 된다.

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리준식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일조우호활동가대표단 귀국

하리다 이끼히로 지주, 평화, 우호활동가대표단 7일 비행기를 위한 평범한 국민친화 활동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일조우호활동가대표단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